

해남 읍호리유적 고인돌군 청동기 거석문화 정수 확인

정비사업 설명회...고인돌 11기 추가 발견 전남 최대 220기 산재 마한문화 형성 토대 판단...체계적 정비·복원, 국가유산 지정 추진

해남 현산면 읍호리 일대에 분포한 고인돌군이 국가유산급의 가치를 지닌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정수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최근 읍호리 현장에서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읍호리 고인돌군은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핵심 유적이다.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시아지역연구소와 함께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면 성매산 남동쪽 기슭을 따라 약 1.2km에 걸쳐 21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 정밀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이어 2025~2026년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단일 유적으로는 전남지역 최대 규모로 220여기에 이르는 고인돌군과 채석장 등이 확인됐

다.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과 청동기 유물 등이 발굴돼 청동기 시대 거석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읍호리 고인돌군은 수량과 면적에서 압도적인 규모로 청동기시대 중심 세력이 이곳에 거주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 측은 "이곳을 축조한 집단이 토착세력으로서 후대의 마한문화 형성에 핵심적인 토대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진 고인돌 외에도 지하에 매몰돼 있던 고인돌 11기를 추가로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뚜껑식), 위석식(돌두름식)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돼 당시의 역동적인 묘제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산강유역과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납작한 렌즈 모양의 묘개들과 해안지역 특유의 매장 풍습인 무덤방에 호형토기(항아리모양토기)를 부

장하는 사례를 한 곳의 유적에서 발견한 것은 이번 조사의 성과로 꼽힌다.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각기 형성됐던 문화가 이곳 해남 읍호리에서 융합돼 특징적인 지역문화로 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를 잇는 문화 이동의 결절지(結節地)로서 해남군곡리패총, 일평리유적, 복일고분군 등 다수의 마한-삼국시대 유적에서 문화교류 양상이 밝혀졌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이 같은 문화교류가 이미 청동기시대에도 이뤄졌다. 해남지역 마한문화의 시원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읍호리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인 읍호리 고인돌군을 통해 해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교류의 역사문화 거점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동북아시아지역연구소 관계자가 23일 열린 해남 현산면 읍호리 고인돌군 현장보고회에서 발굴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일상 속 슬로시티 실천으로 탄소중립 이끌어요

신안군생활개선회 연시총회·특강

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와 슬로시티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자면 생활개선회 회장이자 신안 슬로시티 시민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정 회장이 슬로시티 기본교육을 직접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박 회장은 슬로시티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 운동임을 강조하며 '슬로시티 운동 10가지 생활수칙'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 슬로시티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업사이클링 작품과 친환경 화분 등 다양한 성과물을 전시해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신안군생활개선회 임원들이 슬로시티 조성 및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을 둘러보며 관람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또 연시총회에서는 전·현직 회장단이 함께 제창과 합동공연을 펼치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신안군 농촌진흥과 슬로시티팀장은 "생활개선

회가 슬로시티 실천을 이끄는 지역 여성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진작가 등용문' 목포문학상 공모

박화성소설상·목포작가상 2개 부문

목포시가 한국 근대문학의 산실인 목포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18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목포문학상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목포의 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매년 전국 문학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공모는 장편소설 부문인 '박화성소설상'과 지역 문인 발굴을 위한 '목포작가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박화성소설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편소설 작가인 박화성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국내 대표 출판사인 ㈜문학고지성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목포작가상은 지역 문인 발굴과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운영되며, 목포 출생자 또는 목포에 3년 이상 거주자, 3년 이상 목포 관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 이내 출판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본상(상금 600만 원)과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상(상금 400만 원) 부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당선작은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목포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문학상은 문학적 성과를 기리는 것을 넘어, 목포가 지닌 인문학적 가치와 문학적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의미 있는 통로"라며 "참신하고 역동적인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영광군, 청년근속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4년 최대 2000만원 지원

영광군이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에 단계별 장려금을 지원

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4년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

업으로 1~4년 차 근로자를 둔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1인당 연 5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200만원), 2년 차 45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150만원), 3년 차 550만원(청년 400만원·기업 150만원), 4년 차 500만원(청년 500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이용삼 기자 2yong3@

무안군 해제면 초등학생 방문학습 지원사업

민·관 협력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안군 해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전문학습지사 용진씽크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생 꿈자람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제면은 지역 여건상 학원과 방문학습지 이용이 쉽지 않아 일부 아동의 학습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 후원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과목 방문학습지를 지원하

기로 했다. 또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대상 아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김대영 민간위원장 "지역 아동이 환경의 제약 없이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택 해제면장은 "민간 자원과 행정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